

시가 속 단오 이미지 고찰

조선미*

-차 례-

1. 머리말
2. 단오의 생성배경과 계승
3. 시가 유산의 단오 전통
 - 3.1 고대시가 속 단오 이미지
 - 3.2 고려시대 시가 속 단오 이미지
 - 3.3 조선시대 시가 속 단오 이미지
4. 맺음말

* 중국 장춘대학교(長春大學校) 한국어학과 전임강사(專任講師)

[국문초록]

시가는 노래, 놀이, 제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단오의 세시풍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단오는 생업, 제의, 놀이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명절로, 집단적 행위를 통해 전승되었으며, 시가 속에 그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시가는 당대의 단오 풍습과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대 시가에서 단오는 자연, 신성, 제의적 요소로 표현되며, 신라 시대의 「헌화가」에서는 신과 꽃, 산 등이 단오와 연결된다. 단오는 양기가 충만한 날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신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음양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때 꽃은 생명의 기원이 하늘과 신에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생력(生生力)을 상징하며, 꽃이 피어나는 산은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제의적 장소로 묘사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오의 음양조화와 신성성을 강조하며, 고대 시가 속에서 단오의 제의적 성격을 드러낸다. 고려시대 이후 단오는 여전히 제의 중심의 세시 명절로 남았지만, 다양한 단오 풍속이 시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동」에서는 단오의 약과 관련된 소재가 제의적 이미지와 연결되며, 「한림별곡」에서는 그네뛰기를 통해 단오의 의례적 성격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단오의 명칭이 구체화되면서 시가와 단오의 연관성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오는 전통적 축제로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촉진하며, 시가는 이러한 축제 속에서 남녀 간의 정서적 연결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또한, 시가는 단오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의 조화, 일상생활의 풍속, 고사액막 등의 모습을 담아내며, 민중들의 삶과 체험이 반영된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주제어 : 시가, 단오 전통, 세시풍속, 매개체, 이미지, 생생력, 음양조화

1. 머리말

시가는 구비문학의 단계를 거쳐 문자 발생 이후에 기록문학으로 정착되었으며, 원시종합예술체인 원시가무의 자취를 통해 그 편린을 더듬을 수 있고, 또 농경 생활 및 제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제천의식이라는 원시종합예술로서의 음악과 놀이와 더불어 시가 속에 융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가는 바로 노래와 놀이, 제의와 더불어 있다.

시가의 하나인 향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삼국시대 말엽에 발생하여 통일신라시대 때 성행하다가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고려 초까지 존재하였다. 특히 「헌화가」는 그 자체로 보아서는 민요가 아니지만, 고대의 시가는 음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에 그 전부터 불려오던 음악적 창조에 익숙해지면서 서민층까지 부르게 되었다. 주술의 어법을 원용하고 있는 「헌화가」와 함께 관련 설화는 일찍부터 널리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문예적 가치 외에, 현장성과 상징성이 깃들여 있다. 또 수로부인 설화에는 지리적 공간의 의미와 더불어 자연적인 배경과 결부되어 있고 문화적 환경과 제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의적 성격은 단오 세시풍속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고려시대 시가인 「동동」은 최초의 달거리체 노래이다. 신라문화의 계승자인 문신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향가계의 노래가 자취를 감추고 민요적인 속요가 궁중의 노래로 등장하였다. 「동동」은 월운제의(月運祭儀)¹⁾로 그 목적은 풍요를 기원하는 데 있고, 한편으로는 신을 찬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에게 기도하는 송도 혹은 송축의 내용이 주가 되기에 세시풍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림별곡」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경기체가로 궁중이나 상류층 사이에서 주로 연행되었던 시가이다. 「한림별곡」에서 단옷날 놀이와 풍습이 그려져 있는데 단오의 중요성이 시가 문학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단오라는 명칭이 구체화 되면서 절일에 따라 시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세시가 되었다. 민속으로써의 단오는 생업·제의·놀이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 전승된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동」,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353> (검색일 2024년 8월 10일)

다.²⁾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풍년에 대한 기원과 벽사 풍습이 많이 전해오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기복을 하는 의례적인 행사이다.³⁾ 단오 세시풍속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는 물론, 다양한 속신과 음식, 놀이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농경사회의 원초적인 관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농경사회가 원천적인 생활방식이었던 시절 단옷날 풍습에는 풍요와 생생력(生生力)⁴⁾을 기원하는 제례의식과 함께 놀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월의 흐름과 변천으로 변화·발전·계승·소실되어 갈 수도 있는 풍속들이 시가 속에 스며들어 그 당시 사람들의 수요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처럼 지역 문화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 시가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시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월령체 시가에 나타난 절일에 대한 연구는 전통명절의 세시를 들여다보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가를 통해 단오 세시풍습을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오의 생성배경과 계승을 바탕으로 시가 속 단오 전통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단오의 생성배경과 계승

단오는 옛사람들이 달과 날에 양수가 겹치는 때를 명절로 삼아 즐겼다. 양수 5가 겹쳐 길일로 여기며, 특히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2) 조선미, 「한·중·일 단오민요 고찰」, 『국제언어문학』제56집, 국제언어문학회, 2023, 175면.

3) 조선미, 앞의 논문, 176면.

4) 생생력:한자로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하며, 생명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이는 자연의 변화와 순환, 생명의 탄생과 소멸, 성장과 번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 우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생명을 창출하고 유지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생생력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힘이 결합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며, 생명의 역동성과 잠재성을 나타낸다.

날로 여겨진다. 단오(端午)의 ‘단(端)’은 처음,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십이지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현재 사용되는 음력의 역월(曆月)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인월(寅月)을 1월로 삼았던 것을 따르기 때문에, 묘월(卯月)이 2월, 진월(辰月)이 3월, 사월(巳月)이 4월, 오월(午月)이 5월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오는 중오(重午) 또는 중오(重五)라고도 불리며,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신라 사람들은 5월 5일을 ‘수리’·‘수릿날’·‘수의일’·‘수뢰날’이라 불렀다. 한자어로는 ‘차(車)’·‘차의(車衣)’·‘술의(戌衣)’·‘수뢰(水瀨)’ 등으로 표기된다. 이때 만들어 먹는 떡을 수리떡이라 했으며, 제의를 지낸다. 신라에서는 일 년에 총 6번 오묘(五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중 5월 5일 제의가 있다.

1년에 6번 오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1월 2일·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15일이었다.⁵⁾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시조 혁거세묘·신궁과 함께 36대 해공왕(재위 765~780) 대에 처음으로 정한 오묘를 신라의 종묘로 규정하였다. 새로이 즉위한 왕은 시조묘에 제사를 드려 즉위 사실을 알렸고, 이를 통해 국가를 정비하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의례로 수행하였다.⁶⁾ 신라의 오묘제는 유교적 예제를 수용하여 시행된 국가제의로, 왕과 왕실의 조상들을 모신 사당이기 때문에 국왕의 사적인 제사이자 동시에 국가적인 위상의 제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오묘제는 단독 주신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의 조상신을 모셨다는 점, 조상과 관련된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수행하는 후손들과 가까운 곳에 사당을 세웠다는 점, 기존과 달리 유교적 예제에 따른 국가제의라는 점이 특징이다.⁷⁾ 이외에 『삼국사기』에는 사직 제사, 농경 제사, 명산대천 제사 별제(別祭)에 대

5) 一年六祭五廟 謂正月二日五日 五月五日 七月上旬 八月一日十五日 (『삼국사기』 32, 잡지1, 제사조)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2847> (검색일 2024년 6월 29일)

7) 김나경, 「신라 국가제의와 관련된 종합적 자료 분석 및 재검토-조상제의 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양학』제94집, 2004, 134면.

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신라에는 국가제의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제일(祭日)과 민간제의가 있었다.

제의에 대한 기록은 백제에도 보인다. 백제에서는 천신과 오방신, 시조 구태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중 구태묘의 구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왕실의 직계 시조인 구태에 대한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⁸⁾ 구태묘 제의는 계절에 따라 1년에 4번 지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사계절의 가운데 달마다 왕이 하늘과 오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조 구태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또 가야에서는 수로왕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약…) 수릉왕조(首陵王廟)라고 하였다. 그(수로왕)의 아들 거등왕(居登王)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仇衡王)까지 이 묘(廟)에 배향(配享)하고,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과 8월 5일과 15일을 기다려 풍성하고 깨끗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⁹⁾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수로왕묘에 대한 제사는 일 년에 다섯 번으로, 그 날짜는 수로왕의 아들인 거등왕이 정한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이라고 한다. 제사 때마다 술과 감주를 빚어 올리고, 떡과 밥, 다과와 여러 가지 음식으로 효성(孝誠)을 다하였다.

이같이 신라, 백제, 가야에서는 다양한 제의가 이루어졌는데, 신라 오묘제사와 가야 수로왕묘 제사의 제일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5월 5일이다. 단오가 정확히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5월 5일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중요한 행사를 하는 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곧 5월 5일인 ‘단오’을 중요한 날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말년에 충지(忠至) 잡간(匝干)이란 자가 있었는데 금관(金官) 고성(高城)을 쳐서 빼앗고 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었다. 이에 영규(英規) 아간(阿干)이 장

8) 채미하,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제61집, 2015, 328면.

9) 한국 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2r_0010_0230_0050 (검색일 2024년 6월 29일)

군의 위엄을 빌어 묘향(廟享)을 빼앗아 함부로 제사를 지냈는데, 단오를 맞아 사당에 제사를 지내다가 사당의 대들보가 이유 없이 부러져 떨어져서 인하여 깔려 죽었다. 이에 장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다행히 전세(前世)의 인연으로 해서 외람되어 성왕(聖王)이 계시던 국성(國城)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마땅히 나는 그 진영(眞影)을 그리고 향(香)과 등(燈)을 바쳐 그윽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하고, 교견(蛟絹) 3척을 가지고 진영을 그려 벽 위에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촛불을 켜 놓고 공손히 받들었다.¹⁰⁾

신라 사회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으며, 조상신이나 지역 수호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제사를 함부로 지내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벌이나 불운이 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규 아간이 단오를 맞아 제사를 지내다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단오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단오는 특별한 날로, 이날에 제대로 된 절차와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단오날 의례와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신과 교감을 통한 정화와 기원의 중요한 수단임을 나타낸다.

5월 5일 제일은 파종 후 농작물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마한에서는 해마다 5월에 파종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낮이나 밤이나 술자리를 베풀고 무리를 지어 노래 부르며 춤춘다¹¹⁾고 한다. 비록 단오에 관한 기록은 아니지만, 5월은 농사일을 마치고, 오곡과 백과가 왕성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기풍제¹²⁾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5월 5일 제의는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로, 파종을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부여·동예·가야에서는 왕실 중심의 세시풍속이 존재했다. 부여에서는 영고, 동예에서는 무천, 가야에서는 수로왕에 대한 추모제사가 각기 행해졌다. 특히 동예에서는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10) 한국 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2r_0010_0230_0050(검색일 2024년 6월 29일)

11) 이경화, 『강릉단오제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9, 15면.

12) 기풍제를 기곡제(祈穀祭)라고도 한다. 나라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던 제사로 농경국가에서 백성을 위하여 행해지던 중요한 행사의 하나이다.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5월 수릿날의 축제와 10월 상달의 축제가 농공시필기의례로 상호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5월과 10월의 축제문화 구조는 파종과 수확의례로 보여지며, 수릿날 축제가 자생적 기반 위에 정착된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¹³⁾ 따라서 10월의 축제는 추수 감사의 의미를 지닌 제의였다면, 5월의 축제는 수릿날 풍년 기원의 의미를 지닌 제의이다.

또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는 5월에서 7월에 이르기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5월부터 7일에 비가 오지 않아 조묘와 산천에 제사를 지냈더니, 곧 비가 내렸다는 기록과 왕이 지금의 강릉인 하서주용명약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위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¹⁴⁾는 기록이 있다. 신라 2대 남해왕의 비(妃)인 운제부인(雲帝夫人)은 죽은 뒤에 운제산(雲梯山)의 성모가 되었는데, 가뭄이 들어 부인에게 빌면 효험이 있었다고 하였고, 12대 점해왕 7년에는 조묘와 명산에 기복을 하여 비를 얻었다고 한다.¹⁵⁾ 따라서 5월 5일 제의는 기우제의 성격과 기풍의례의 성격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단오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적 세계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기 이전으로부터 5월 5일 단오 때 제의를 지내는 일이 주된 풍속이었을 것이다.¹⁶⁾ 특히 신라와 가야에 단오 관련 기록이 있음을 볼 때 단오는 민간에서는 명절로, 왕실에서는 제일로, 신과의 만남을 이루는 신성성과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의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던 단오는 고려시대부터 궁중에서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까지 중요시하는 속절로 기록되었다.¹⁷⁾ 삼국시대에는 단오를 다른 세시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 신과 조상에게 제의를 지내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면, 고려시대와

13) 이경화, 앞의 책, 17-18면.

14)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2;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8 덕왕 14년조;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10, 현덕왕 9년.

15)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70-171면.

16) 이경화, 앞의 책, 18면.

17) 『고려사』권84, “俗節元正上元寒食上巳端午重九冬至八關秋夕”

서 단옷날 놀이, 속신, 장식 등 다양한 세시풍속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 단오 풍속의 핵심은 여전히 삼천과 천지, 조상에 지내는 제사였다. 그러나 제의를 통해 신과의 만남을 이루고 풍년과 안강을 기원하였다는 사실과 궁과 민간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로, 각종 문헌에 단오풍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은 고려시대에도 단오는 중요한 명절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와서 『동국세시기』를 포함한 각종 문집에 단오에 대한 감회, 단옷날 행하던 내용 풍속, 단옷날 유래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문인들은 눈에 비친 단오의 세시풍속과 민중의 삶을 글로 읊었고, 단옷날 제의·속신·놀이·음식 등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삶을 진술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리하여 당시의 문헌에서 단오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단오라는 명칭이 구체화되었다.

1920년~1930년대의 단오는 놀이문화가 전국적으로 행해졌고, 운동회 등과 결합되어 지역 중심의 축제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면면이 전승되어 오던 단오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 속에 지역마다 단오제 전승의 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강릉단오제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단오는 ‘단오제’로 불리게 되었다.¹⁸⁾

3. 시가 유산의 단오 전통

3.1 고대시가 속 단오 이미지

고대 시가에서 단오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날로 묘사된다. 이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으로 신성한 제의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특히 단오는 자연, 신성, 제의적 요소로 표현되며, 단오를 묘사하는 시가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이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는 단오가 봄과 여름의 경계에 위치하여 자연의 가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시기

18) 조선미, 『한·중 단오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81-83면.

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꽃이 피고 초목이 무성한 자연의 이미지는 단오의 생생력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가 이루어지며, 신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음양의 결합을 상징한다.

신라시대 향가인 「헌화가」는 『삼국유사』기이(奇異)편 수로부인 이야기에 전해지는 4구체 향가이다. 「헌화가」의 내용과 배경설화에는 다양한 제의적 표상이 나타난다. 암소, 꽃, 천길낭떠러지, 석장, 주선 등과 같은 제의적 표상들은 배경설화의 서사 문맥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헌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배경설화 속 사건을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이 크게 달라 「헌화가」속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헌화가」를 일상의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로 보는 관점부터 초월적 성스러움의 노래로, 혹은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노래로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특히 등장인물인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를 평범한 촌로로 보는 관점부터 초자연적인 신격의 인물로 보는 관점까지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한다.¹⁹⁾ 비록 일치된 해석을 찾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의와 관련된 해석을 중심으로, 제의적 표상이 왜 나타나는지와 이를 단오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헌화가」는 신라 제33대 성덕왕(702-737) 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견우노옹(牽牛老翁)이 지은 즉흥 노래로 『삼국유사』권2에 수로부인이라 제목 아래 노래와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설화가 실려 있다. 산과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동해 해변을 무대로 절세미녀 수로부인과 견우노옹이 우연히 만나 지어진 「헌화가」는 짧으면서도 깔끔하게 많은 메시지를 담아냈다.

紫布岩乎邊希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자춧빛 바위 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19)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로부인이나 노인을 세속의 인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인물로 보는 것이다.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30-33면;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7면; 임치균, 「水路夫人說話小考」, 『관악어문연구』제12권,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88, 276-277면)

吾盼不喻慚盼伊賜等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저 꽃 꺾어 드리오리다.

-「헌화가」²⁰⁾

「헌화가」의 배경과 내용에는 풍부한 상징성과 서정적 요소가 담겨 있다. 배경설화와 연결해 봤을 때 첫 번째 구절의 ‘자줏빛 바위 가’는 만개한 철쭉으로 덮인 천 길 벼랑을 가리킨다. 이는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피어 있는 붉은 철쭉을 통해 정열과 열정을 상징하고, 사랑에 대한 굳은 맹세와 변함없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구절에서 등장하는 ‘암소’는 노인의 농경 사회적 배경을 드러낸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자산인 소를 놓게 되는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세 번째 구절에서 노인은 순정공의 부인 수로의 미모에 매혹되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 조건을 들어주면 천 길 벼랑 위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 외간 남자에 대한 경계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농경사회에서 남녀 간의 결합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노인과 수로부인의 결합을 암시한다. 이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며, 당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중요한 문학적 유산임을 보여준다.

이에 「헌화가」의 해석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경설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바위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두르고 있어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데, 그 위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내게 저 꽃을 꺾어 주겠소?”

그러나 따르던 사람들은,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이때 암소를 끌고 그 곁을 지나가던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20) 일연(정민호 현토·주해), 『「한문, 원본」을 주해·풀이한 삼국유사[신라 초략본]』, 명문당, 2019, 243면.

꽃을 꺾어 노래까지 지어서 바쳤다.²¹⁾

위의 설화에서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던 도중에 바닷가에서 주선(主膳)을 베풀었다는 것을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는 「헌화가」의 전체 서사문맥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선(膳)은 왕의 식사를 의미하는 용어로만 사용되었다. 즉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기에 순정공이 주선을 베풀었다는 것은 장도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의 제물을 의미한다.²²⁾ 철쭉이 만개한 시간적 배경은 순정공의 행차 시간이 4~5월일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주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받쳐 제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순정공은 4~5월에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던 도중 초월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다한 제물을 바친 것은 신성(神聖)과의 화해를 통해 삶의 조화와 질서를 기원하고자 했다.

주선을 신성과의 만남의 매개로 봤을 때 「헌화가」의 배경설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노인’의 정체이다. 천 길 절벽에 올라가 꽃을 꺾어 오는 노인의 비범성에 초점을 두면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의 정체는 부처·보살·선승·신선 등 초월적인 존재로 보기도 한다.²³⁾ 이는 그곳의 지형과 지형물에 익숙하고 마음만 먹으면 절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범한 인물이기에 수로부인 서사를 제의의 한 과정으로 보는 의거로 사용된다.

또 도교에서는 검은 암소를 불멸영생의 상징물로 간주하지만, 수로부인 이야기에서는 ‘암소’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 노인을 산신이나 수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농경문화에서 풍요와 생산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임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영물인 ‘암소’를 끌고 가는 노인은 신통함을 지니고 집단의 무의식과 바람을 실현해주는 존재, 즉 고난에 처한 인간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신적인 존재로 수로부인과의 결합은 신과 인간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21) 일연(김봉주 편저), 『교양인을 위한 삼국사기』, 인간사랑, 2020, 185-186면.

22) 현승환, 「헌화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시가연구』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41면.

23) 이창식,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 『아시아강원민속』제23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9, 201면.

단오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다양한 기원의례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기원하고, 그 힘을 인간에게 전달받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옷날 제의는 성과 속 곧, 음의 신과 양의 인간이 만나는 음양상생의 시간이다. 즉 인간과 신들의 결합방식에는 음양원리를 통한 생생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신의 결합방식에서 신성한 힘이 인간에게 전달되어 생명력을 더하는 과정은 음양의 조화와 생생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오는 음양의 조화와 생생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절기로,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신들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제의이다.

신적인 존재인 노인이 당대에 견줄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용모에 반해 잡고 있던 영물인 암소를 놓고, 목숨을 걸고 천길 벼랑 위에 올라 피어 있는 철쭉을 꺾으려고 했다는 서술은 신적인 존재인 노인과 인간인 수로부인의 욕망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노인과 인간인 수로부인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실현하는 매개체는 바로 꽃이며,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 바위 위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자줏빛으로 물들었다’는 서술은 이 꽃에 신비성을 더해준다.

「헌화가」의 계절적인 배경과 철쭉의 신성성을 미루어 봤을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러 가는 날이 단오 행사가 진행되는 4월에서 5월일 가능성이 크다. 신라, 백제, 가야에서 4~5월에 지내는 제의는 5월 5일 제의이다. 오묘제, 천신제, 수로왕 제의나 기풍제, 기우제 등 다양한 제의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5월 5일을 택해 신과의 소통과 만남을 이루고, 이를 통해 풍년과 안전을 기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헌화가」도 5월 5일 제의를 바탕으로 두고, 만개한 철쭉을 통해 신과의 만남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신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철쭉은 결코 평범한 꽃은 아니다. 따라서 「헌화가」에 등장하는 철쭉은 신성한 꽃이고 단오의 제의적 성격과 맞물린다.

제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장(祭場)이 필요하다. 「헌화가」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제의적 배경을 통해 주선을 베풀기 위한 장소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 바위 위에 철쭉꽃이 만발해 있다’는 서술은 바위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바다를 굽어보는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과장된

표현이다. 철쭉이 피어 있는 천길 벼랑 위라는 공간은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이는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 그리고 꽃과 수로부인 간의 대립적인 간격을 상징한다. ‘천 길 낭떠러지’라는 공간은 그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신비롭고 은밀한 장소로 묘사되며, 이는 신이 적 요소를 더해준다.

예로부터 꽃이 피는 산은 생명력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산신이 기거하며 인간의 운명에 깊이 관여한다고 믿었다. 인간의 수명, 복락, 풍요, 사후는 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서 피어난 꽃은 신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는 매개체이며, 주술적 힘을 지닌 비범한 꽃이다. 또 신이 존재하는 곳은 심산(深山)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는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왔고 첫 도착지가 바로 산이다. 실제 동서양의 신들은 전부 산에서 인간과의 만남을 이뤘다. 산에서 인간을 만나 인간으로 화(化)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기도 한다. 아사달의 산신이 된 단군, 태백산의 산신이 된 김유신 등이 그 예이다.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다. 신과 인간의 만남을 이어주는 만남의 공간이 되는 산을 통해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화된 공간은 단오제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춧빛’으로 뒤덮인 천길 아래에서의 신에게 바치는 주선, 그리고 제의의 공간이 되는 산, 신과 인간의 만남의 매개체인 꽃은 「헌화가」와 단오를 연결시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시기 단오라는 명칭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의적 표상을 통해 단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과 수로부인의 결합은 단오제가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을 계승하여 단오의 지역 정체성을 찾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단오제의 양상과 맞물린다.

3.2 고려시대 시가 속 단오 이미지

고려시대부터 단오는 민간에서 중요시하는 속절로 기록되었다. 이때부터 단오에 조상사당에 제사를 지낸 기록과 집안의 안녕을 위해 조상과 신령에게 복을 비는 단오고사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단오제의는 건

강·풍요·제액을 소망하기 위한 민간 제신으로 발전하였고, 단오 풍속의 핵심은 여전히 삼천과 천지, 조상에 지내는 제사였다. 즉 양기가 최고 조로 달하는 날인 5월 5일에 제신을 통해 신과의 만남을 이루고, 풍년과 안강을 기원하고자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 시기부터 각종 문집에 단오 세시풍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궁과 민간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동동」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월령가형식의 춤반주곡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동동」은 원래 민가에서 불리던 노래였으나, 궁중으로 유입되어 정제에 맞게 재구성된 노래로 보고 있고, 내용에 남녀 간의 애정을 그린 것이 많다 하여 고려시대의 속요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²⁴⁾ 또한, 정초에 그해 달의 운수를 점쳐보는 달불이처럼²⁵⁾ 그달의 운수를 점치는 월운제의(月運祭儀)로 보고 있다. 월운제의의 목적은 풍요를 기원하는 데 있고, 신을 찬송하거나 신에게 기도하는 송도 혹은 송축의 내용이 주가 된다. 즉 「동동」은 곁핼과 소외,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담아낼 뿐 아니라, ‘임’을 기리고 ‘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송도의 내용도 지니고 있다.²⁶⁾ 이외에 「동동」의 성격에 대해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가로 보기도 하는데²⁷⁾, 이러한 사실은 「동동」이 지닌 절일과 절기의 복합적 성격과 시간적 배경에서 오는 것이다.

「동동」에 나타난 세시풍속에는 구조적으로 주기성·시계성·운동성을 지닌다. 특히 5월령에는 단옷날이 배경이 되어 단오의 명칭과 함께 4월까지 나타나지 않은 ‘임’에게 바칠 ‘천년을 사실’ 약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임’에게 바치는 선약은 천년을 살아가는 약이 되기를 바라는 소

24) 문숙희, 「조선전기동동(動動) 가무악(歌舞樂) 융합 연구」, 『한국문화와 예술』 제 28집, 2018, 6-7면.

25) 달불이: 농가에서 음력 정월 열 나흘날에, 콩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일을 말한다. 수수깁을 둘로 찢개어 속에 열두 군데를 오목하게 파서 콩 열두 알에 열두 달을 표시하여 수수깁에 넣고, 지푸라기로 매어 우물에 넣었다가 보름날 새벽에 꺼내어 보아 콩이 불은 정도로 그달의 가물 것과 비 올 것을 점친다. 콩이 많이 불은 달은 비가 많이 오고 콩이 적게 불은 달은 비가 적게 온다고 한다.

26) 김진희, 「열두 달 노래의 시간적 구조와 고려가요 <動動>」, 『한국시가연구』제40집, 한국시가학회, 2016, 52면.

27) 김희진, 앞의 논문, 52-60면.

망이 깃들어 있다.

五月 五日애	5월 5일에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아으 수릿날 아츰 약은
즈믄 힐 長存히살	천년을 사실
藥이라 받줍노이다.	약이기에 바치옵니다.
아으	아으 동동다리
...(약)	

-「동동」 6연²⁸⁾

예로부터 단옷날은 양기가 가장 왕성하여 천중가절이라 하였고 여러 가지 시후적, 주술적 행사를 하였다. 단옷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이 하사한 약을 캐어 영생불멸의 염원을 담은 장수와 안장을 바라는 정이 담겨 있다. 「동동」에서 단오의 풍속 중에 천년을 사실 약에 대한 소재를 선택한 점과 ‘임’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연한 선택이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동」을 제의 때 부르던 노래로 본다면 5월 연에서는 4월 연까지 계속되어온 ‘임’에 대한 회상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약을 소재로 하여 작가 스스로 ‘임’에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곧 약은 ‘임’을 만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출시키는 소재이다. 만날 수 없는 현실과의 거리감을 초월적인 신과의 만남으로 극복하고 다시 신으로부터 ‘임’을 분리해 냄으로써 작가의 간절한 사랑을 소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5월 연을 단옷날 약을 받는 대상을 신으로 보고, 약을 통해 신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영신(迎神)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또 「동동」은 궁중에 전해져 불리던 노래로 볼 때 ‘임’은 임금이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는 내의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다가오는 여름 날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하기 위해 임금에게 드렸다고 한다. 또 『동의보감』에는 옥추단은 단옷날에 내의원에서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임금은 그것을 각신에게 하사하여 허리에 차고 다니면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4195&cid=46642&categoryId=46642>(검색일 2023년 7월 12일)

서 액을 물리치고 해독을 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서사에서 밝혔듯이 「동동」이 송도를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임금이나 왕실을 대상으로 수복(壽福)을 비는 내용이 본래의 구실의 것이라 단옷날에 임금에게 바치는 ‘천년을 사실 약’이 제호탕과 옥추단이다.

「동동」을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로 볼 때, 약은 쑥과 익모초였을 것이다. 민간에서는 단옷날 쑥과 익모초를 뜯어 약으로 쓰는 풍습이 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단옷날에 익모초와 쑥을 취하여 말린 후 약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옷날 백성들은 들에 나가 쑥을 캐어 약을 만들고, 약을 제거하며 다산을 위한 여성의 약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단옷날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은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쉽게 캘 수 있고 약효가 탁월한 쑥이나 익모초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동」이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라고 할 때, 양이 가득한 날 약을 물리치고 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사랑하는 이에게 바쳐 ‘임’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가사에 담았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단옷날에 제의만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부터는 단오 풍속을 통한 단오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옷날 그네뛰기는 놀이가 제한되었던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에서의 탈피 또는 해방을 맛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장치였다. 더구나 여성들에 대한 제한이 많았던 시기 그네뛰기는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놀이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 필요한 체력을 길러주는 역동적인 놀이이다. 일상에 갇혀 살던 젊은 여성들은 그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할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윤리관에서 벗어나 억압된 욕구의 발산과 삶에 대한 적극적 표출한 것이다. 즉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싹트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 단옷날이고, 그네뛰기를 통해 음양의 조화가 실현된다.

「한림별곡」에도 단옷날 그네 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네놀이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현종 때에 중국 사신이 와서 보고, “고려는 단오에 그네 놀이를 한다.”는 기록이 『송사(宋史)』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려사』열전 최충현전에 “단오에 충현이 백정 동궁에서 그네 놀이를 베풀었는데 문무 4품 이상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

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⁹⁾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당시 고려에서는 민간에서만만 아니라 귀족 계층에서도 그네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자) 皂莢(조협)남기
 紅(홍)실로 紅(홍)글위 믹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정소년)하, 위 내 가는 덕 늪 갈세라
 (葉)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스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스
 길헤
 위 携手同遊(휴수동유)스景(경) 기 엇더흐니잇고

당당당 당추사는 두음을 따서, 음률에 맞춘 당추사는 호두나무요 쥐엄나무다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었습니다.

그네를 당기시라/밀어시라 (왈자패인)정소년이여,
 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구려.

마치 옥을 깎은 듯이 가녀린 가인의 아리따운 두 손길을,
 아! 옥같은 손길 마주 잡고 노니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한림별곡」 제8장³⁰⁾

「한림별곡」의 제8장에서는 당추자나무와 조협나무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어 당기고 미는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이 놀이 공간에서 ‘정소년(鄭少年)’은 그네를 밀고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소녀와 정소년이 서로 어울리는 놀이 공간에서 앞다투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³¹⁾ 이처럼 현사(賢士)와 미녀가 짝을 이루어 ‘휴수동유(攜手同遊)’하는 형상은 단오는 남녀노소, 귀천과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 즐기는 풍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단옷날 그네뛰기는 젊은 남녀들이 즐기는 축제는 발랄한 성(性)이 풍요로운 생산과 맞물리는 주술적 행위이기도 하다. 일상에 간혀 있던 젊은 여성들은 단오를 맞아 그

29) 이경화, 앞의 책, 21면.

30) 이창식, 앞의 책, 153면.

31) 임주탁, 「〈한림별곡〉의 맥락과 유선의 상상력」, 『한국시가연구』 제55집, 한국시가학회, 2022, 81~82면.

네를 타고 하늘로 솟으며 여성의 미를 마음껏 발산한다. 동시에 여성의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몸을 탄력 있게 가꾸어주며 여성들의 희망, 활력, 생생력의 표현이다.

이처럼 「동동」과 「한림별곡」은 단옷날의 의례적 성격을 반영하며, 여성들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생생력을 표현하는 모습을 그린다. 「동동」에는 천년을 의미하는 영생의 약과 제액을 물리치는 상징이 담겨 있으며, 신과 인간의 만남의 제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옷날에 행해지는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있다. 「한림별곡」에는 단옷날 놀이인 그네뛰기를 통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여성들의 생생력을 나타냈다. 이로써 고려시대의 시가는 단오의 풍습과 신성한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하여 그 시대의 단옷날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3.3 조선시대 시가 속 단오 이미지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각종 문집에 단오에 대한 감회, 단옷날 행하던 내용과 풍속, 단옷날 유래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문인들은 단오의 세시풍속과 민중의 삶을 글로 읊었고, 단옷날 제의·속신·놀이·음식 등을 소재로 민중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냈다. 그리하여 이들의 글에서 단오의 제의적인 측면 이외에 다양한 면에서 당시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때부터 단오라는 명칭이 구체화되었다.

시가는 민속과 생활과 감정이 표출되어 나타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즐거움과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달의 순서에 따라 한 해 동안의 기후 변화나 의식 및 행사 따위를 읊은 노래인 고려가요「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12월가」, 「사친가(思親歌)」 등과 같은 월령체 혹은 월령가, 또는 달거리로 불리는 시가가 대표적이다. 달거리는 문학적인 시가로부터 남녀 간 상사(相思)의 정, 농촌 풍속의 묘사, 농민 생활의 묘사, 풍물패의 덕담, 고사액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정학유(鄭學游, 1786~1855)에 의해 지어진 「농가월령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사와 세시 풍속, 놀이, 행사, 음식 등을 월별로 나누어 알려 주는 노래다. 여기서 ‘월령’은 매달 할 일을 적어 놓은 행사표를

뜻한다. 서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농사 내용과 세시 풍속이 담겨 있고 해·달·별의 운행과 역대의 월령 및 당시 쓰이던 역법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사에서는 농사에 힘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은 박자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농사 기술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달의 월령에서는 절기와 농사의 절기, 세시풍속 등을 노래하고 있다.

향촌의 아녀들아 추천을 말려니와
 청홍의 창포비녀 가절을 허송마라
 노는 틈에 하올 일이 약이나 베어두소.
 -「농가월령가」³²⁾(일부)

‘향촌의 아녀들’은 시골 마을의 젊은 여성을 의미하고, ‘추천’은 단옷날 대표적인 놀이다. 단오에 창포를 이용한 여러 풍속이 있는데, 그중에 창포비녀를 머리에 꽂는 풍속도 있다. 창포의 효험을 빌어 악귀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기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단옷날은 농사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노는 틈’이 생긴 때이기에 마냥 놀지만 말고 약초를 캐라고 하는 일 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알려 준 것이다.

단옷날 놀이와 음식으로 신명 나게 노는 모습은 조선 후기 전라도 벽촌에서 살았던 여류문인 김삼의당(金三宜堂, 1769~1823)의 「십이월사(十二月詞)」에도 나타나고 있다. 「십이월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수로 지어진 세시풍속 시이다. 조선시대 이름난 문인들은 세시를 읊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김삼의당은 여류문인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열두 달의 세시풍속을 한시로 읊었고 ‘오월단오’ 편에서는 비 오는 단옷날의 아침 풍경을 묘사하였다.

黃梅細雨濕輕煙
 簾外幽禽喚晝眠
 擾亂東鄰多如盤

가느다란 장맛비 열은 안개 적시고
 주렴 밖 멀리서 새가 낮잠 깨우네
 동녘 마을 요란하게 많은 사람 모여서

32) 이창식, 『고전시가강의』, 역락, 2013, 251-252면.

綠楊陰裏送鞦韆

푸른 버들 그늘아래 그네를 타는구나

-십이월사 오월단오(十二月詞五月端午)³³⁾

단오가 시작되는 5월 5일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열은 안개와 함께 가늘게 내리는 비는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조용한 마을의 일상 속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요란하게 모인 사람들은 단옷날의 활기찬 분위기를 나타낸다. 즉 단오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날인 것이다. 계절의 전환점에 위치한 단옷날 그네를 타며 단오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놀이를 통해 단오의 문화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십이월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단옷날 내리는 비에 대한 서술이다. 단옷날 내리는 비를 단오우(端午雨)라고 하데, 중국에서는 단옷날 내리는 비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 불길한 조짐으로 여겼다. 반대로 비가 안 오면 농사일은 풍조우순, 오곡농등(風調雨順、五穀豐登)될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에 설화가 있는데, 단오에는 해를 따기 위해 강력한 악마인 ‘괴물’이 출현한다고 전해진다. 이 괴물은 비를 통해 인간 세계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역병을 달고 들어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단오에 비가 내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십이월사」의 표현대로 단옷날 아침 비를 맞으면서까지 한 데 모여 그네를 탔다고 한 것은 중국의 단옷날 속신과 달리 한국에서는 단오우는 불길함이 아니기에 단오는 한국의 정서와 체계에 의해 형성된 세시 풍속임을 보여준다.

또 한시『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붉은 색 장식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단오옷은 젊은 낭자(娘子)에게 꼭 맞으니,
가는 모시베로 만든 홀 치마에 잇빛이 선명하다.
꽃다운 나무 아래서 그네를 다 파하고,
창포 뿌리 비녀가 떨어지니 작은 머리털이 비녀에 두루 있다.

33) 수현, 「십이월사-김삼의당」, <https://yjongha.tistory.com/94> (검색일 2023년 11월 17일)

-「세시풍요」 중 34)

단옷날에는 젊은 여인들이 모시 베에 곱게 잇(紅)물을 드린 훌치마를 지어 입었는데, 그 얇고 고운 옷차림으로 그네를 뛰었다. 그 옷이 생기 넘치는 젊은 처자에게 꼭 맞으니, 처자의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었다. 또 이날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았는데, 이는 재액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잇³⁵⁾은 붉은빛을 띠고 있는데 잇꽃의 꽃부리에서 얻은 붉은 빛의 물감으로 천을 물들여 옷을 지어 입는다. 오방색에서 적색은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으로 상징되어 민속에서 많이 쓰이는 색이다. 또 토속신앙의 주술적 의미로 귀신을 쫓는 데 주로 이용하였다.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팔의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고, 아들을 낳았을 때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문밖에 붉은 고추를 단다든지, 부적을 쓸 때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옷날 잇으로 물들인 옷을 지어 입음은 여성의 생생력과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설 명절 차림새와 같고,
 더벅머리 아(Υ)자 비녀에 푸른 창포를 잘랐다.
 푸르고 붉은 장명루(長命縷) 매어 놓고서,
 금박(金箔)한 옥추단 알들이 노랗다.

-「세시풍요」 중 36)

「세시풍요」 중 푸르고 붉은 장명루를 매어 놓는다는 것도 붉은색의 주술적인 힘으로 귀신과 병화를 물리쳐 아이의 건강을 빌기 위함이고, 아이의 건강을 빌기 위해 단옷날에는 산뜻한 새 옷을 지어 입혔고, 창포로 호로(葫蘆)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차도록 해서 재액을 물리치기도

34) 임기중 등,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190면.

35)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피침 모양이다. 7~9월에 붉은빛을 띤 누런색의 꽃이 줄기 끝과 가지 끝에 핀다. 씨로는 기름을 짜고 꽃은 약용하고, 꽃물로 붉은빛 물감을 만든다. 이집트가 원산지로서 중국, 인도, 남유럽, 북아메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36) 임기중 역, 앞의 책, 190면.

하였다. 단옷날 내의원에서 옥추단을 만들어 금박을 입혀 신하들에게 나눠 주는 풍속도 그 연원은 장명루의 풍속에 있다. 황금색은 재액을 물리치는 색이며 선종의 실도 장명루와 같은 성격의 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시가 속에는 단오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고, 제의 중심의 단오가 계승과 발전을 통해 단오 세시풍속을 내포하게 되었다. 즉 단오라는 명칭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단오는 전통적인 축제로 변모하였으며, 축제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졌다. 시가는 이러한 축제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남녀 간의 정서적인 연결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단옷날 모습,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일상생활 풍속, 고사액막 등을 담아내고 있다.

4. 맺음말

단오의 생성배경과 계승을 세 층위로 시가 속 단오 전통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단오의 생성인 삼국시대이다. 비록 단오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5월 5일 제의 양상을 통해 이때부터 단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라, 백제, 가야 때에 5월 5일에 제의를 지낸 기록을 통해 단오는 민간에서는 명절로, 왕실에서는 제일로, 신과의 만남을 이루는 신성성과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날임을 알 수 있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경사회가 원천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시절 신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단오라는 세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삼국시기의 단오는 풍년 기원의 의미와 제액기복의 의미를 지닌 제의 중심의 세시였다.

단오 제의가 생성된 배경과 「헌화가」의 시간적 배경, 농경사회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연계시켰을 때, 「헌화가」는 결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즉 노인은 신적인 존재로 수로부인과의 결합은 신과 인간의 만남과 음양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꽃을 향한 수로부인의 정서와 미인 수로부인을 향한 노인의 정서의 대조가 미의 상징인 꽃에 수렴된다. 이 꽃은 인간과 신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 결코 평범한

꽃은 아니다. 꽃의 상징적 의미를 파헤쳐 보면 제의에 등장하는 꽃은 신성하게 취급되는 신격과 동일시되는 주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철쭉은 단오제의 시기를 함의하고 있으면서 그 심층에는 신물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력과 풍요의 상징인 꽃이 피는 공간인 산은 제장이다. 실제 동서 양을 막론하고 산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삼국시기에 행하던 5월 5일 제의 공간은 문화 환경의 원형을 함축하고 있고,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천길 벼랑 위에 피어 있는 철쭉과 산은 「헌화가」와 단오를 연결시키고 산이라는 이미지와 공간은 무속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제의적 특성과 사회적 원인과 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헌화가」에서 보여지는 제의의 양상은 고대사회에서 단옷날 행하는 제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적 원인과 신앙적 결과와도 상통하고 있고, 오늘날 단오 문화권에서 행하는 제의에서 보이는 의례적인 효험과 맞물린다.

다음은 단오 풍속이 등장하기 시작한 고려시대이다. 이 시기 단오 역시 제의 중심이었지만 단옷날 놀이와 같은 세시풍속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궁과 민간에서 함께 즐기는 명절로 발전하였다. 즉 이 시기 단오는 여전히 제의 중심의 세시였지만 분명한 것은 단오는 중요한 세시이다. 이는 「동동」과 「한림별곡」에서 나타난다.

「동동」에는 약이 등장하는데, ‘약(藥)’은 즐거움을 주는 풀(草)을 의미하며, 근심 해소와 성취를 상징한다. 「동동」의 6연에서 ‘임’이 특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은 신이 주는 약, 임금에게 바치는 약, 단옷날 백성이 캐어 사랑하는 ‘임’에게 주는 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동」은 단옷날 약을 물리치고 영생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바라는 내용과 신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단오의 제의적인 성격과 맞물리고, 단오의 세시풍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림별곡」에서는 단옷날 그네뛰기를 등장시켰다. 이는 단오가 농경사회에서 가지는 의례적인 의미와 연결되며,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한 여성들의 생생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부터 단오라는 명칭이 구체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놀이가 주를 이루는 단오의 축제문화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단옷날 풍속들이 시가를 통해 대거 드러나는 시기였다.

따라서 단오는 민간전승의 중요한 명절로, 농경사회의 풍요와 생생력을 기원하는 제례의식과 놀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세시명절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오 풍속은 지역민들의 농경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시가 속에도 이러한 민속과 생활, 감정이 표출된다. 「농가월령가」에는 단옷날 약초를 캐는 풍습이, 「십이월사」에는 단옷날 그네뛰기와 좋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세시풍요」에서는 붉은 실로 그네를 매어 타는 모습과 붉은색의 상징성이 표현된다. 단오의 다양한 풍속을 시가 속에 내포하여 단오가 갖는 여성들의 희망과 활력, 생생력을 상징하는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시가는 자연과 계절, 인간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단오와 같은 의례적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단오는 생기가 넘치는 날로 생명력과 재생을 기원하는 풍습과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오의 상징성은 시가 속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 음과 양의 조화, 재생과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시가는 단오의 의례와 연관된 상징들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며, 단오의 전통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는 시가의 밑바닥에는 민중들의 삶의 형식과 체험이 잔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mages of Dano in Poetic Songs

ZHAO XIANMEI(Changchun University)

Poetry is deeply related to songs, plays, and rituals, and this relationship is also evident in Dano's three poems. Dano is a holiday closely connected to livelihood, rituals, and plays, and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collective actions, and its appearance is reflected in poetry. Poetry is an important clue to examine the Dano customs and their meaning of the time. In ancient poetry, Dano is expressed as nature, divinity, and ritual elements, and in "Heonhwaga" of the Silla Dynasty, gods, flowers, and mountains are connected to Dano. Dano is a day full of yang, a ritual is held to God, and it symbolizes the union of yin and yang through the meeting of God and humans. At this time, flowers symbolize a woman's life history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origin of life is in heaven and God, and the blooming mountain is described as a ritual place where meetings with God take place. These images emphasize the yin-yang harmony and divinity of Dano, and reveal the ritual character of Dano in ancient poetry. After the Goryeo Dynasty, Dano still remained a three-poetry holiday centered on rituals, but various Dano customs began to appear in poetry. In "Dongdong", the subject matter related to Dano's medicine is connected with the ritual image, and in "Hanlimbyulgok", the ritual character of Dano is shown through a swing jump. As the name of Dano became more concrete in the Joseon Dynasty,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and Dano appeared in more diverse ways. Dano is a traditional festival that promotes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poetry becomes an important medium for expressing the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se festivals. In addition, poetry contains the appearance of the harmony of people's lives and nature, the customs of daily life, and the dead liquid film through Dano, and has value as an important material reflect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the people.

Key words : poetic songs, Dano tradition, seasonal customs, medium, image, vitality, harmony of yin and yang.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중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30-33면.
이경화, 『강릉단오제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9, 15-18면.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넥서스북스, 2004, 175-177면.
이창식, 『고전시가강의』, 역락, 2013, 251-252면.
일연 (정민호 현토·주해), 『「한문, 원본」을 주해·풀이한 삼국유사[신라 초략본]』, 명문당, 2019, 243면.
일연(김봉주 편저), 『교양인을 위한 삼국사기』, 인간사랑, 2020, 185-186면.
임기중 등,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190면.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7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溫知論叢』제48집, 온지학회, 2016, 35-60면.
김나경, 「신라 국가제외와 관련된 종합적 자료 분석 및 재검토-조상제의 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양학』제94집, 2004, 134면.
김선봉, 「강릉지방 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335-336면.
김의숙, 「한국민속제외와 음양오행」,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70-171면.
김진희, 「열두 달 노래의 시간적 구조와 고려가요 <動動>」, 『한국시가연구』제40집, 한국시가학회, 2016, 52면.
문숙희, 「조선전기동동(動動) 가무악(歌舞樂) 융합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제28집, 2018, 6-7면.
박진태,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사회의 제의문화」, 『비교민속학』제21집, 비교민속학회, 2001, 367-378면.
신승훈, 「漢詩를 통해 보는 조선시대 歲時風俗」, 『한국문학논총』제70집, 2005, 71-95면.
유경환, 「동동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제65권, 한국어교육학회, 2003, 348-349면.
이창식,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 『아시아강원민속』제23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9, 201-405면.
임기중, 「鄉歌의 呪詞의 詩文法」, 『東國論叢』제32집, 동국대학교, 1993, 1-20면.
임치균, 「水路夫人說話小考」, 『관악어문연구』제12권,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88, 276-277면.

- 전영권, 「순정공·수로부인 행차에 관한 지리학적 소고」,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한국지역지리학회, 2014, 3면.
- 조규익, 「頌禱 모티프의 연원가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조선미, 『한·중 단오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82-83면.
- 조선미, 「한·중·일 단오민요 고찰」, 『국제언어문학』제56집, 국제언어문학회, 2023, 175-178면.
- 채미하,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제61집, 2015, 328면.
- 현승환, 「헌화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시가연구』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41면.